

전자정보 공동 활용방안 및 활성화 연구 - C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haring and Activation Plan of Electronic Resources

안영희,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yha@cheonan.ac.kr
이응봉,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eblee@chungnam.ac.kr

Young-heui Ahn,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Eung-Bong Lee,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국내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컨소시엄에 가입해 전자정보를 구독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구독해 예산 절감효과는 있으나 이용 및 활용면에서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간 전자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전자정보를 공동 수서해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는 대학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 및 정보공유 협정을 맺어 이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천안의 C대학교 홈페이지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정보의 이용활성화는 이용자 편의형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전자정보 원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행태가 변화하면서 대학도서관에서는 해외 학술지의 경우, 디지털도서관의 영향으로 페이퍼 중심의 자료 구입에서 전자정보 중심으로 수서 정책을 바꾸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한정된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내의 많은 기관들이 컨소시엄에 가입해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궁극적 목적은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전자정보 자원을 최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다.

OhioLINK의 Electronic Journal Center에서

18개월간의 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컨소시엄으로 공동 구독함으로써 구독종수 대비 이용종수가 높아 저널 구입의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998년 3월 21일부터 2000년 5월 2일까지 포항공대에서 실시한 자료형태별 학술지 이용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쇄학술지를 월 평균 934회 이용하고 전자저널은 3,700회 이용하여 전자저널을 4배 이상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독 종수에 대한 이용률과 자료구입 예산의 투자 효율성에서도 전자저널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투자 효과 면에서 전자저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구중심 대학이 아닌 지방에 위치해 있는 대학도서관에서는 컨소시엄에 가입해 구

독중수는 늘렸지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방대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구독한 자료들의 공동 활용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천안의 C대학교 홈페이지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1 연구방법 및 한계

국내 대학도서관의 컨소시엄 가입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공동 활용체제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 사례를 문헌과 인터넷을 통한 조사하였다..

웹 페이지를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에서는 천안의 C대학교 홈페이지를 사례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분별 표본조사 및 전자설문지에 의한 이용자 조사를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1.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자정보란 용어는 학술정보자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Web-DB, 전자저널을 포함한 개념이다.

2. 컨소시엄

2.1 컨소시엄 현황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는 KERIS, KESLI 및 KISTI 컨소시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컨소시엄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에서 수행하는 해외 학술 전자정보 공동구매의 추진목적은 국내외 해외

전자정보 도입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전자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동의 수요를 창출하여 규모의 경제에 의한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참여기관의 결집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 전자정보를 구매함은 물론 웹상에서 공동구매 사이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정보공유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KERIS의 공동구매는 199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국내 모든 대학 및 학술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아카데미 라이선스와 참여기관 혹은 KERIS가 추천하는 전자정보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만 활용 가능한 사이트 라이선스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컨소시엄 운영 지원을 위한 15개 대학의 담당자로 구성된 해외 전자정보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자정보의 도입·협상단계에서 대학의 의견을 제시한다.

2.1.2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과 학기술전자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NDSL(National Digital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전자저널의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저널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컨소시엄 프로젝트이다.

KESLI는 2000년 1월부터 6종의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통한 전자저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4년 8월 현재, 총 44개 컨소시엄으로 10,141종의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필요한 비용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각 도서관은 원하는 출판사의 컨소

시험 조건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인 KAIST의 역할은 KESLI 홈페이지 구축, 공지 및 홍보서비스의 제공, 국가과학기술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e-Gate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 전자저널서비스, 참여기관들을 대표하여 출판사와 컨소시엄 계약체결,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의 전체 컨소시엄의 대표창구역할, 도서관과 이용자들에게 개별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을 배포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컨소시엄 참가기관 중에서 지역과 관중을 고려하여 학술저널의 구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10개 기관의 전자저널 구매 실무담당자 또는 과장급으로 구성하고 있다.

KESLI 컨소시엄 실무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부터 KESLI의 운영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컨소시엄 운영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컨소시엄

KISTI(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2001년 1월 발족된 기관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최근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 12월 생명과학분야 BIOSIS Previews on the web의 공동구매를 추진하였다. KISTI는 컨소시엄 명칭을 'National Access Consortium'이라 칭하고 KISTI가 주관기관이 되고 국내 대행사를 보급 대행사로 지정하여 참가기관을 모집하였다. 15개 대학과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총 20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독하는 방식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였고 구독 비용의 일부를 KISTI가 지원하고 참여기관은 규모별로 자체 구독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KISTI는 국가의 산업 및 과학기술 정보유통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외 전자정보의 공동구매 사업에 뒤늦게 참여함으로써 국내의 해외 전자정보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KAIST, KERIS 및 KISTI 등 다원화 체제가 구성되었다.

2.2 국내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 가입 현황

국내 대학도서관의 2003년도 컨소시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KERIS와 KESLI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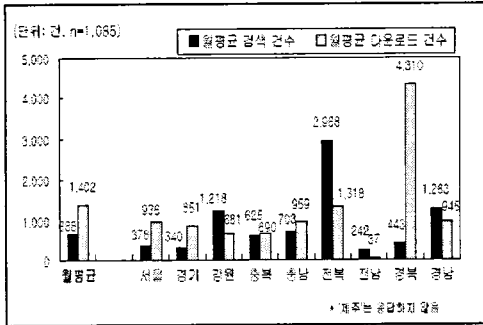
(표 1) 해외 전자정보 분야별 컨소시엄 비율(20)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청	전남	전북
2002	80	135	408	139	67	35	10	645
KERIS	55.0	33.5	8.3	21.5	22.4	71.4	50.0	44.7
KESLI	13.8	40.0	73.0	46.0	22.4	5.7	0.0	36.2
개발협력과 및 국제	1.3	4.2	1.5	2.2	9.6	5.8	10.0	2.2
KISTI	0.0	0.0	2.7	0.0	0.0	0.0	0.0	0.0
대학 및 전문대 컨소시엄	0.0	0.0	1.9	0.0	0.0	0.0	0.0	0.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0	0.0	0.0	0.0	13.4	0.0	0.0	0.0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원	0.0	0.0	0.2	0.0	7.5	0.0	0.0	0.2
비컨소시엄	0.0	0.5	0.2	0.0	3.0	0.0	0.0	0.3
합계	0.0	0.0	0.5	0.0	0.0	0.0	0.0	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0	0.0	0.0	0.0	0.6	0.0	0.0	0.2
무응답	20.0	21.5	11.5	30.2	22.4	17.1	30.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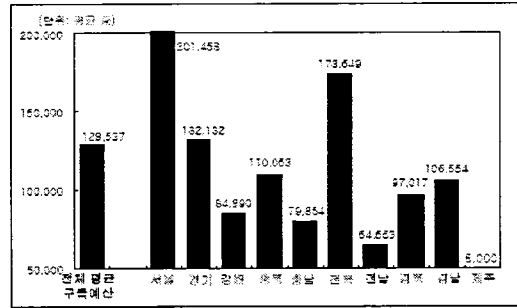
지역별 해외 전자정보 이용률을 살펴보면, 경북지역과 전북지역이 현저하게 높은 검색과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지역별 해외전자정보 검색 및 다운로드 건수(월평균)21)

20)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구독 현황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p.45



지역별 해외 전자정보 구독종수를 살펴보면, 경남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울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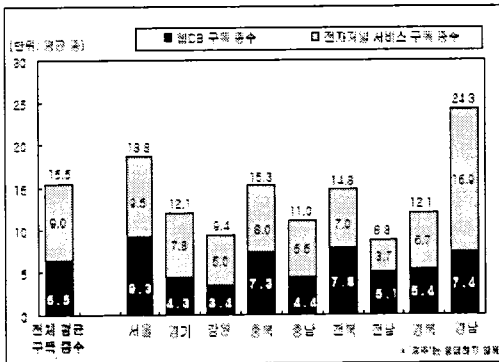


2.3 C대학 전자정보 컨소시엄 가입현황

C대학의 해외 자료 구입행태를 보면, 다른 기관과는 달리 꾸준히 자료구입 예산을 확충해 가는 상황이다.

학과가 계속 늘어나면서 학생수 및 교수 등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외 저널 페이퍼 가격과 전자정보 구독가격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상승하고 있지만 전자정보 구독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컨소시엄에 가입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정보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지역별 평균 구독 종수²²⁾

그리고, 지역별 해외 전자정보 평균 구독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지역별 평균 구독 예산²³⁾

(표 2) C대학교 해외 전자정보 구독종수 및 예산

(단위: 천원)

년도	페이퍼 지널	페이퍼 구독가격	전자정보 (원문제공수)	전자정보 구독가격
2001	202	72,827	880	18,921
2002	225	96,924	7,888	50,885
2003	294	103,745	10,206	99,791
2004	390	127,345	12,079	128,659

- 21)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구독 현황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p.43
- 22)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구독 현황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p.48
- 23)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구독 현황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p.57

(표 3) C대학교 해외 전자정보 이용 건수

Site	Total Full Text	월평균다운로드수
EBSCO HOST	3543	295
EMERALD	184	15
IEL	9112	759
KLUWER	205	17
Science Direct	4424	368

(기간 : 2003년 1월-2003년 12월)

C대학교의 경우, 웹DB 3~5종 구독, 전자저널의 경우 6~10종을 구독하고 있다.

구독예산은 2003년 기준 9천 979만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4 전자정보 컨소시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방대학의 도서관에서는 컨소시엄에 가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구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전자정보의 장서개발 정책 부재로 인해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중 전자정보 구독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은 대학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국가 라이선스 구독 사업을 통한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정보의 구독 건수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 경쟁력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소재 대학은 연구 중심대학으로, 지방대학은 특수성에 맞게 주제별, 특성화된 자료를 구비하고, 소규모 기관은 규모에 맞는 컨소시엄 유형을 개발해 나가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구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구독하고 있는 인쇄저널 기준

으로 전자저널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에 구입하고 있는 인쇄저널 가격에 약간의 가격을 부가해 구독하지만 이용면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들만 구독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종수를 구독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용 면에서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은 외화낭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각 대학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와 대학교수들의 업적 평가에서도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들이 요구해 전자정보를 구독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한 교수들이 전혀 자료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수들은 '보직을 맡아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회원 도서관들이 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구입 조건을 벤더 중심이 아닌 도서관 중심이 되도록 방향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방식은 벤더가 임의로 구축해 놓은 해외 학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도서관들이 구입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통합된 위력으로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만 구입할 수 있는 주문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5 전자정보 공동 활용방안

전자정보 컨소시엄으로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자료를 구입하고 있지만 이용 활용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jouConsortium은 1999년에 아주대를 포함

한 경기지역 6개 대학도서관협의회(아주대, 경희대, 한양대, 명지대 및 수원대)에서 외국학술지 공동구독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1999년에 Science Direct 전자저널 400여종의 공동구독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16,000여종의 Swetscan 목차 DB, 그리고 수학 관련 DB인 MathSciNet를 구매하여 회원 대학들이 공동으로 구독하고 있다. 회원 기관간의 공동수서, 상호대차서비스, 그리고 외부문헌의 경우에 on/off-line을 통해 24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스피드서비스를 제공한다.

PAUJIS(Pusan Area University Journal Information System)는 1999년 부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소속 6개 대학(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울산대, 인제대)들이 외국학술지의 중복 구매를 피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각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외국학술지 1,500여종을 포함한 14,000여종의 외국학술지에 대한 목차 DB검색(키워드, 저자명, 잡지명 검색) 및 원문 복사서비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단행본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 목차 데이터가 갱신된다.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구축해 1998년부터 운영하는 컨소시엄은 영남대를 포함해 대구 경북지역 소재 5개 대학(영남대,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PAUJIS와 같이 각 회원 대학들간의 공동수서, DB 통합,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예산 절감에 있다. 아직까지 공동으로 외국학술DB를 구매하고 있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0년 서울 동북부지역 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ULCNS(University Council in the northeast Seoul)에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8개교의 회원교(광운대, 대진대, 덕성

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성대)로 각 대학별로 30~50개씩 분산 소장하고 있는 총 300여개의 저널에 대한 분담 수서 목록을 공유하고 있으며, 목차검색 서비스, 통합검색 및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다.

몇몇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 분담수서 및 공동활용을 위한 모임이 있으나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의 매체가 변함에 따라 인쇄 중심에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공동협력망을 구축하여 상호대차를 활성화시키면 더욱 많은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보 공동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해 상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 추진 방법으로는 소장 콘텐츠의 공동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운영을 하고, 전자정보의 원문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 기관간 홈페이지에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상시 게재하여 정보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를 주체별로 분담을 해서 구축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각 대학에서 주로 역점을 두는 특화된 사업과 연계해 전자정보를 구성해 공유한다면 많은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동업무와 공동교육을 자주 수행하고, 사서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서용 BBS를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있어 서로 관심과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용자 교육도 회원 도서관간에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만들어 이용자는 소속 학

교가 아니더라도 편리하고 호감이 가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 창출 기관으로서 각 대학도서관은 생산하는 자료를 원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그 지역의 정보센터로서 향토자료, 지역신문, 지역출판 등 지역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또 지역사회에 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지역 내의 연구소나 기타 문화 기관 등을 각 도서관에 연계시켜 상호협조하고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되어 지역사회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자정보의 효율적 서비스 방안

2003년도 KESLI 전자저널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천안의 C대학교 홈페이지를 사례로 하여 전자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전자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현황

전자정보의 이용 극대화 방안으로는 학술정보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자 편의형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전자정보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천안의 C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자정보를 이용자 편의형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전자정보에 대한 메타자료의 반입으로 통합검색에서 전자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통합검색, 주제별 리스트, DB 제공처별 리스트, 저널명 리스트,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별 리스트에서는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NDSL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URL을 링크

시켜 놓아 자관에 없는 자료들은 Holding정보와 다른 기관에 원문복사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저널 검색에 있어 키워드나 서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검색기능 뿐만이 아니라 주제별로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검색결과 내에서 재정렬할 수 있도록 정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검색도움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기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DB에 넣어 한꺼번에 DB별로 검색 건수를 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웹DB 통합검색 화면을 구축하고 있다.

3.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웹DB 통합검색 화면에서 검색을 할 경우 로딩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용자는 웹에서 한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10초가 지나면 다른 화면으로 넘겨버리므로 10초 이내의 로드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황혜경 1998).

전자저널, 기사, e-book 등의 자료가 MARC으로 작성되지 않고 메타자료로 반입 받아 DB를 구성하게 되는데 and와 &를 똑같은 글자로 인식을 못해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거과일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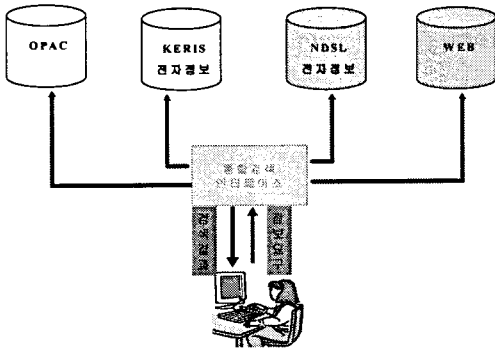
같은 자료를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자저널, 인쇄저널, 중복으로 제공되는 전자저널 등 여러 건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통합목록을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보원의 정보는 수시로 변하고, Dead link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사서를 두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소시업으로 가입해 구독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각각의 배너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

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NDSL, KERIS의 정보들을 한번의 접근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통합검색 인터페이스의 화면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통합검색 인터페이스

현재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 학술DB 등을 동시에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마련하고, 검색된 데이터는 디지털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웹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정보 공유체제 확립과 이용자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적극적인 서비스, 다양한 전자매체의 활용 등으로 학습활동 및 연구지원 강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는 사용자의 다양성, 정보요구의 일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웹 환경을 제작하고 끊임없이 평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상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 사서를 두어야 한다.

메타데이터 관리 통합검색 가능하도록 검색 인터페이스의 기능성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4. 결론

매년 증가하는 학술지의 구독비용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출판물을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도서관 간의 협력을 통한 컨소시엄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재정으로 이용되지 않는 자원을 위해 매년 접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전자정보 컨소시엄을 통해 구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지방 대학의 전자정보의 구독과 현황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컨소시엄의 문제점으로는 지방대학의 도서관에서는 컨소시엄에 가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구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전자정보의 장서개발 정책 부재로 인해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유의 활용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저작권 관련사항만 해결된다면 각 기관의 상호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해 상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를 주제별로 분담을 해서 구축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서 주 역점을 두는 특화된 사업과 연계해 전자정보를 구성·공유한다면 많은 예산 절감 및 자료 확충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 전자정보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상호 공동 협력하는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검색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정보, 컨소시엄을 통해 구독하고 있는 전자정보 그리고 컨소시엄 회원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통합검색이 가

능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미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 등으로 활성화 시킨다면 컨소시엄으로 구독한 전자정보의 많은 이용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 송재룡, 전자도서관 컨소시엄 구축 방안 : 현황과 과제, 사회이론 통권 21호, 2002.
- 신은자, 전자저널의 통합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2000.
- 이란주; 황신혜, 전자저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에 관한 연구 :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2003.
- 이우범, 디지털 도서관 간의 상호 정보 교류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권 3호, 2000.
- 이현실, 대학도서관 협력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1999.
- 정동열,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 분석에 의한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3호, 1999.
- 한혜영·조현양, 해외학술 전자정보의 국가컨소시엄 정책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 2003.
- 황신혜,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관리와 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 Hirtmath, Uma. Electronic Consortia: Resource Sharing in the Digital Age, Colletion Building, 0(2), 80-87, 2000.
- Rich, Linda A. and Julie L. Rabine, The Changing Access ti Electronic Journal : A Suvey of Academic Library Websites Revisited, Serials Review, 27(3-4), 1-16, 2001.
- <http://lib.cheonan.ac.kr>